

淸吟石에서의 문학 활동 양상과 의미

김 선 영*

- I. 머리말
- II. 이황의 <청음석> 한시 창작
- III. <청음석>에서의 활동 양상과 의미
 - 1. 遊賞과 詩會 경험 공유
 - 2. 계회를 통한 의식 전승
 - 3. 선대의 추송 공간 건립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李滉(1501~1570)이 ‘청음석’이라 명명한 장소와 그곳에서의 활동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청음석은 李堦(1469~1517)가 노닐며 시를 남긴 도계의 반석인데, 이황이 차운 시를 남긴 이후로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장소로 기능한다. 이황은 ‘숙부 이우’와 ‘시인 이우’에 대한 공감의 정서로써 청음석을 아꼈다. 이후로 청음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遊賞과 詩會 활동이다. 그 결과 향촌 사림들이 ‘시를 읊조리며 노니는 장소’ 경험이 공유되는 현상이 되었다. 둘째는 청음석 수계를 조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gsun2425@hanmail.net

직하여 결속력을 꾀하는 활동이다. 선대의 고사를 재현하고, 자취를 계승해 나가는 전통은 영남지역 사림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는 추송 공간의 건립 활동이다. 청음석은 문중의 家物로 인식되면서, 도학의 연원이 되는 중요한 위상을 점하였다. 후손들은 청음석 언덕에 ‘도계정사’를 세우고 ‘청음헌’ 편액을 걸어 이우와 이황을 함께 기렸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도출되었다. 먼저, 문학 활동의 순기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우와 이황, 후대 제현들의 문학 활동이 없었다면 청음석은 자연 대상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소가 의미화 되는 과정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남 유림들이 정신적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단서가 될 수 있겠다. 나아가 청량산이나 도산서당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영역으로 의미화된 것처럼 청음석도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도계 반석, 송재 이우, 청음석, 퇴계 이황, 詩會, 계회, 도계정사

I. 머리말

‘청음석’은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하류에 있는 반석으로, 松齋 李堦(1469~1517)가 노닐던 곳이다. 이우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듬해 1511년 2월에 고향 땅 온계로 覲親을 왔고, 3월에 도계에서 노닐 경험을 시로 남겼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계 반석에서 노닐다>¹⁾라는 시가 그것이다. 退溪 李滉(1501~1570)은 11세의 나이로 당시의 유람에 동행하였다. 그는 1547년에 족친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옛일을 추억하며 오래도록 감회에 젖어, 그 반석을 ‘청음석’이라 하고 이우가 지은 시에서 운자를 가져와 오언 절구 2수를 읊었다.²⁾

이우의 시제에서 언급된 ‘도계’는 행정구역상 현재의 토계리이다. 이우는 判書公 李繼陽(1424~1488)의 묘갈명 초본을 찬술하면서 ‘兜溪 굽이에 터를 잡았다.’고 하였다. 이황이 묘갈명 초본에 주석하기를, “도계라는 것은 숙부의 생각에 시내가 위아래로 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계라고 일컬은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온계 아래인 토계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나, ‘兎’와 ‘兜’는 그 소리가 서로 비슷해서 두루 통용된다.”라고 하였다.³⁾

‘청음’이라는 명칭은 ‘맑게 읊조리는데 되레 흥을 깨뜨린다.’라는 이우의 시구에서 가져왔다.⁴⁾ 이황은 청음석을 소재로 7수의 차운시를 지었

- 1) 『송재선생속집』 권1에 <率兒輩遊兜溪盤石>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시의 번역은 『국역 송재집』(한국국학진흥원 발간)을 따랐다.
- 2) 李滉, 『退溪先生文集』卷1, <淸吟石 并序>, “溫溪下流, 有盤石臨溪, 辛未年中, 叔父松齋府君以江原監司來觀, 出遊石上. 滉以童子侍側. 有紅衣官人來謁, 乃昌樂丞也. 叔父有詩曰: ‘欲得溪山妙, 松門獨自回. 淸吟還敗意, 誰遣督郵來?’ 今與諸兄姪會此, 追念前事, 感歎久之. 因名其石曰: 淸吟石, 用其韻二絕云.”
- 3) 李頤淳, 『後溪集』卷5, <文純公宅里水石亭臺祠廟>, “松齋所撰判書公碣銘草本, 有卜築兜溪曲之文, 而先生注云, 公所居實在溫溪. 銘云, 兜溪者叔父意, 豈不以溪之上下可通, 謂之兜溪耶. 溪之下似指兎溪, 而兎與兜以其聲, 相近而通稱, 故如是云云耶.”
- 4) 琴輔, 『梅軒先生文集』, <淸吟石謹次退溪先生韻>, “溫溪下流有盤石, 往在辛未松齋先生[堦], 以江原監司, 來遊石上有詩. 丁未暮春, 退溪先生遊此, 追感前事, 取松齋詩淸吟還敗意之意, 因名為淸吟石.”

다.5) 7수 가운데 1수만이 운자가 다른데, 이는 차운의 전통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로 청음석은 이황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까지 회합과 유람의 장소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물론, 계획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1940년에는 청음석 주변 언덕에 이우와 이황을 기억하는 공간 ‘도계정사’와 ‘청음헌’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황을 상징하는 공간이 ‘청량산’과 ‘도산서당’으로 대표된다면, 청음석은 이우와 이황을 상징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청음석’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의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에 청음석과 청음석을 제재로 지은 문학작품에 주목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손오규가 「퇴계의 산수소품 연구」를 통해서 <청음석> 시를 언급하였다. 논자는 퇴계가 전대의 일을 추억하며 반석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고, 그것이 산수의 즐거움에서 정신적인 만족까지 연결된다는 의미로 설명하였다.6) 퇴계의 ‘산수지락’을 보여주는 한 장소로써 청음석에 주목한 것이나, 처음 청음석을 언급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윤친근은 청음석이 있는 조상의 땅에서 퇴계의 고향의식을 추론하는 논지를 펼치면서 청음석을 언급하였다.7) 이 연구는 이황의 귀향과 향토의식에 접근하여 이황의 감성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본고는 위의 선행연구에 주목하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우가 지은 原詩와 청음석을 제재로 한 이황의 차운시를 살핀다. 후대까지도 이 장소가 보존된 주된 이유는 문학창작 활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우와 이황’이라는 인물의 위상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둘째는 관련 기록물을 통해 청음석에서의 문학 활동 양상과 그 의미의 변천 과정을 살핀다. 한 장소에서 구성원들 간에 경험을 공유하는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

5) 『퇴계집』 권1에 2수, 권2에 2수가 있다. 『퇴계집 별집』 권1에 3수, 『퇴계집 속집』에 1수가 전한다.

6) 손오규, 「퇴계의 산수소품 연구」, 『새얼어문논집』 7권, 새얼어문학회, 1994.

7) 윤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 - 땅 관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0권, 퇴계학연구원, 2016.

가 도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송재집』, 『퇴계전서』 등의 개별 문집을 1차 자료로 삼고, 필요에 따라 일기 자료나 편액[記板], <宗門慶會錄> 성책문서, <淸吟精舍建築費計>, <淸吟精舍建築費收支計>, <淸吟亭記(鄭寅普)> 등의 낱장 문서를 참고하였다.

II. 이황의 <청음석> 한시 창작

엄밀히 말해 청음석을 시제로 삼은 이는 이황이다. 그러나 이는 이우가 시를 지은 고사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II장에서는 이우가 지은 原詩 및 이황이 지은 청음석 시를 검토하여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기로 한다. 『송재선생별집』 권1 <연보 별본>에 의하면, 이우는 1510년 10월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고, 이듬해 2월에 휴가를 받아 노모를 뵈러 고향을 찾았다. 3월에 가족들을 이끌고 도계의 반석에서 노닐면서 시를 지었는데, 아래의 시가 그것이다.

欲得溪山妙	산천의 아름다움 얻으려고,
松門獨自回	소나무 숲으로 홀로 돌아왔네.
淸吟還敗意	맑게 읊조리는데 되레 흥취 깨뜨리니,
誰遣督郵來	누가 창락 찰방을 보냈는가.

위의 시는 길이는 짧지만, 어조가 맑고 담박하며 시인의 심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먼저, 기구와 승구를 보자. 나들이의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화자는 시내가 둘러싼 산수에서 노닐고자 길을 나섰다. 가족들을 동행한 소풍이었다. 시인은 그들과 함께 노닐면서 홀로 술숱을 찾아 천지와 합일되는 감흥을 즐겼다. 이는 먼 길을 돌아 고향의 산수를 거니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이라 하겠다. 한편, 시어에 등장하는 소나무 숲은 고향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우는 선조가 심은 소나무

숲 근처에 집을 지었고, 선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송재’로 자호했기 때문이다.⁸⁾

전구에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산수 사이를 노닐며 절로 시심이 일었는데,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구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관원을 탓하였다.⁹⁾ 이는 임지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을 고조시킨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친족을 동반한 모임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이우는 단란한 하루를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이우의 뛰어난 詩作 능력을 보여주는 근거일 수 있겠다.

위의 시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이황의 <청음석> 시¹⁰⁾를 검토하면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먼저, 차운 시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청음석을 소재로 7체의 시를 지었는데, 1수를 제외하고 모두 원운을 차운하였다. 次韻은 원시에서 운자를 가져와 시를 읊는 한시의 전통적인 작시 방법이다. 차운시는 원시를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를 만들어내므로, 이황의 시는 차운 시의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황에게 청음석은 추체험의 장소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 8) 李隅, 『松齋先生詩集』 卷3, <叔父戶曹參判府君墓碣識[李滉]>, “溫溪之上, 有先人手植松林, 府君就其旁, 築室居之, 以寓桑梓之感, 因自號爲松.”
- 9) 『송재별집』 연보에 의하면, 이우는 1511년 3월에 도계 반석에서 노닐었다. 또한, 『관동행록』에는 1511년 3월에 강원 도사와 함께 총석정·삼일포 등 유람할 만한 곳을 빠짐없이 둘러보았다는 기록이 있어, 도계에서 노닐 뒤에 임지로 복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0) 아래의 표는 이황의 <청음석> 시를 ‘그리움, 遊賞, 詩興, 이별’이라는 주제로 분류해본 것이다. 여기에서 ‘유상’은 遊覽과 遊戲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이다.

번호	시제	작자	시기	문집	주제
	率兒輩遊兜溪盤石	李隅	1511	『松齋續集』卷一	原詩, 詩興
1	淸吟石 并序(二首)	李滉	1547	『退溪文集』卷一	그리움, 詩興
2	淸吟石	李滉		『退溪文集』卷二	遊賞
3	初歸陪家兄 與諸人會淸吟石	李滉	1549	『退溪文集』卷二	遊賞, 詩興
4	八月初五日 淸吟石次韻	李滉		『退溪別集』卷一	詩興
5	十二月初六日淸吟石送崔郎子粹還京	李滉		『退溪別集』卷一	이별
6	上元日回自溫溪 過淸吟石 次回字韻	李滉	1552	『退溪別集』卷一	그리움, 遊賞
7	淸吟石 次完韻 丁巳	李滉	1557	『退溪續集』卷二	그리움, 詩興 *韻字 다름

러 청음석을 찾아 시를 창작하였고, 만남과 헤어짐을 겪었다. 이것은 한 장소에서 상대방의 체험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는 물론 대상에 대한 미감의 본질을 추측하게 한다.

이황은 ‘숙부 이우’와 ‘시인 이우’에 대한 마음으로 청음석 시를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숙부 이우에 대한 마음이다. 이황은 숙부와 함께 했던 그 모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당시에 이우는 43세의 나이에 학문과 실력을 갖춘 관료였고, 이황은 11세의 소년이었다. 1547년(47세)에 이황이 첫 번째로 차운한 시를 보자. 가족으로서의 동질감과 부재의 대상을 향한 그리움을 시로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 總角陪游地 吟魂去不回 唯餘溪響石 似欲慰重來	총각 시절 숙부 모시고 놀던 곳에, 흠조리던 혼은 가서 오지 않는데. 시냇물만 반석을 쳐 울리니, 위로받으러 다시 오신 듯하네.
(나) 坡陀巨石在 窈窕一溪回 更待山花發 吾今較早來	독 아래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윽한 시내 감돌아 흐르네. 산꽃 피기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지금 조금 일찍 온 것이리라. ¹¹⁾

(가)의 시에서 이황은 소년 시절에 숙부를 모시고 노닐었던 장소를 찾았다. 세월이 흘러 숙부는 계시지 않고, 시냇물 소리만이 반석을 채우고 있다. 시인은 그 시냇물 소리는 곧 숙부의 혼이 찾아온 것이라 상상하면서, 시·창작적인 시어를 통해 그리운 마음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의 시에도 부재의 대상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큰 바위가 있는 독 사이로 시내가 그윽하게 감싸며 흐른다. 어린 시절에 숙부와 노닐던 때에는 꽃이 만발했는데, 나는 오늘 꽃이 피기 전에 청음석을 찾았다. 서둘러 이곳을 찾게 된 마음이 곧 그리움이니, 이로써 이황이 이우를 기리는 마음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叔姪의 관계를 넘어서는 긴밀함이 있었다. 이황은

11)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1, <淸吟石 并序>

<송재 묘갈지>에 “여러 아버 없는 조카들을 어루만지고 가르치심이 친 아들과 같았다.”¹²⁾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두 사람이 부자기간과 같은 관계이자 학맥을 계승한 師弟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우는 일찍 세상을 떠난 형님¹³⁾을 대신하여 조카들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濫溪 李瀿(1496~1550)와 이황에게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퇴계 선생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숙부 송재공은 학문을 권면함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이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으셨다. 언젠가 『논어』와 그 집주를 背誦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틀리지 않았으나, 역시 칭찬하는 말씀이 없었다. 내가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은 모두 숙부께서 가르치고 독려하신 덕분이다.”¹⁴⁾

인용문에 따르면, 숙부의 가르침은 이황이 평생 학문에 매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황에게 이우는 부모와 스승인 것이다. 이는 이황이 이우의 묘갈을 짓고, 유고를 수습한 일에서도 확인된다. 이황은 이우의 아들 李壽筥(1502~1539)이 모친을 여윈 뒤에 세상을 떠나자, 그를 장사지냈다. 그 뒤에 世系를 참고하여 이우 집안에 관한 대강의 일을 초록했다.¹⁵⁾ 후손이 선대의 행적을 정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행장과 碑誌 문자를 公器나 公道로 인식하여 대단히 중시하며 함부로 짓지 않았던 이황의 찬술 태도를 고려한다면,¹⁶⁾ 이우의 행적을 직접 수습하고 편찬한 태도는 그 의미가 특별할 수 있다.

12) 李瑀, 『松齋先生詩集』 卷3, <叔父戶曹參判墓碣識>(李滉), “撫教諸孤姪, 猶己之子.”

13) 이황의 부친인 李埴(1463~1502)을 가리킨다.

14) 金誠一, 『退溪先生言行錄』 卷1, 類編, <學問>, “先生嘗曰; 松齋公勸學甚嚴, 不假辭色, 嘗背誦論語, 自初章至終篇, 不差一字, 而亦無獎許之言. 余之不怠於學, 皆松齋教督之力也.”

15) 李瑀, 『松齋先生詩集』 卷3, <叔父戶曹參判墓碣識>(李滉), “所著詩文, 多散逸, 有關東錄·歸田錄, 今合爲松齋集一卷. 又有東國史略二卷, …夫人後於府君二十年而歿, 葬之同原, 才免喪而察訪, 又歿以故墓道久未有刻文, 今憑等, 圖議謹識世系志行之梗槩, 刻之碣陰, 至如銘文之作, 則滉所不敢以俟, 夫後來之君子云. 年月日. 姪滉泣書.”

16) 이종호,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비석과 비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길사, 2004, 485면.

다음으로 ‘시인 이우’에 대한 마음이다. 이황은 맑은 시구를 읊은 시인 이우에게 자신을 투영하며 동질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음석이라는 명명에서 짐작되듯이, ‘청음’은 시를 짓는 행위이다. ‘청음’을 읊은 이우와 ‘청음’에 차운한 이황 모두 시에 뛰어났다. 이우는 당대에 시로 이름이 있었다. 이황 또한 이우가 시에 뛰어났다고 전한다. “문장은 맑고 전아한데 시에 더욱 뛰어났다. 당대의 명현들을 만나면 반드시 술을 불러 놓고 시를 읊조리며 마음 가는 대로 즐기면서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한 것이다.¹⁷⁾

이황은 형 李灂의 죽음 등 정치적 소요를 겪으며 일족들과 함께 하는 단란한 일상을 꿈꿨다. 出仕를 번복한 것이 그 근거일 수 있다. 복잡한 정치 속에서 맑게 읊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집에 처음 돌아오자 형님[澄]을 모시고 여러 친구와 더불어 청음석에 모이다>는 제목의 시를 보자. 벼슬살이에 지친 마음을 표출한 시로 이해된다. ‘집에 처음 돌아오자’라는 시제와 ‘한단의 꿈’이라는 시어를 통해, 1548년에 지어진 시로 짐작된다.¹⁸⁾ 이황이 사직하고 처음 귀향하여, 부귀공명을 좇는 일이 부질없다고 말한 것이다.

躑躅春猶闕	봄이 왔건만 철쭉은 피지 않았고,
邯鄲夢始回	한단의 옛꿈에서 비로소 돌아왔도다.
淸吟無盡藏	무한한 그 경계를 맑게 읊어보려니,
從此百千來	이제부터 내 걸음이 백천 번 잦으리라. ¹⁹⁾

위의 시를 보면, 그는 청음석에 모여 무한정 시를 읊으리라 다짐하였다. 그의 다짐은 무슨 의미인가. 시를 읊조리기에 좋은 청음석을 수없이 찾으리라는 언표로써 귀향의 의지²⁰⁾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또

17) 李堦, 『松齋先生詩集』 卷3, <叔父戶曹參判府君墓碣識>(李滉), “爲文章, 淸瞻典雅, 尤長於詩. 其與一時名勝相遇, 必命酒哦詩, 暢適忘形.”
 18)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땅 관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0권, 퇴계학연구원, 2016. 37면 참조.
 19)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2, <初歸陪家兄 與諸人會淸吟石>.

한, 이황이 ‘청음’이라는 문학 활동에 주목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정월 보름날 온계에서 돌아오다가 청음석을 지나며 회자 운에 차운하다>라는 제목의 시이다.

礪石類回首	시냇가 바위는 자꾸 고개 돌리게 만들어,
吟鞍去復回	말 위에서 읊조리며 갔다가 또 돌아오네.
春光滿幽谷	봄빛이 그윽한 계곡에 가득하니,
明日酒同來	내일 술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리라. ²¹⁾

위의 시는 이황이 임자년(1552) 정월 보름에 온계와 상계를 왕래하는 길에 청음석에서 지은 시이다. 그는 감회를 시로 풀었으나, 못다 풀어낸 회포가 있어 내일 다시 찾고자 한다. 내일은 술을 챙겨 오겠다는 결구가 인상적이다. 술을 동반하는 유상은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매개로써 술을 은유하였으나, 이는 ‘술을 불러 놓고 시를 읊조리며 마음 가는 대로 즐긴’ 시인 이우와 크게 다르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황은 姪壻인 최덕수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청음석에서 그를 전송하였다.²²⁾ 눈발이 흠날리는 계절에도 청음석을 두른 물은 한결같이 흐른다. 기약할 수 없는 헤어짐 앞에서, 시인은 아쉬움을 청음석에 새기고 있다. 어느덧 이황에게 청음석은 시를 짓고 일상을 보내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청음석은 이황의 마음이 이입된 대상이자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황이 청음석이라 명명하고 시를 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숙부 이우에 대한 마음이다. 숙부를 향한 그리움과 남다른 소회로써 청음석에 주목하였다. 혈육의 정과 같은 애뜻함과 흠모의 정을 유감없이 표출한 결과 도계 반석을 청음석

20) 이황의 은퇴 의지는 1549년에 ‘세 번이나 감사에게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회답이 없자 그대로 귀향했다.’라는 연보에서도 드러난다.

21)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卷1, <上元日 回自溫溪 過淸吟石 次回字韻 壬子>.

22)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卷1, <十二月初六日 淸吟石送崔郎子粹還京>, “鳴泉隨石轉, 舞雪逐風回. 別恨留淸境, 何年定再來.”

으로 명명하고, 이우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다음은 시인 이우에 대한 마음으로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청음석은 이우와 이황의 문학창작 장소이다. 이황은 청음석에서 시를 짓는 즐거움을 재현하면서, 시를 읊조린 이우의 마음을 헤아렸다. 한편, 복잡한 정치계에서는 맑게 읊조리는 일이 쉽지 않아, 이황은 ‘청음’이라는 문학 활동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이자 시인이었던 이우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포개어 창작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황이 출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시점을 전후로 청음석 시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1539년부터 1550년(50세)에 터전을 마련하여 도산으로 낙향할 때까지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항상 낙향과 학문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출사와 사직을 반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만년에 고향에서의 은거를 실행했는데, 청음석 시는 그러한 전후 과정에서 지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Ⅲ. <청음석>에서의 활동 양상과 의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황은 청음석을 자주 遊賞하며 부재의 대상 향한 존모와 시인으로서의 서정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이황의 사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후인들은 청음석에서 선대의 고사를 잇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소가 오랜 시간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을 통해 특정되는 것이라면, 청음석은 만남과 활동, 관계의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관계망이 형성된 장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음석에서의 활동 양상을 세 가지 면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상과 시 창작 활동이고, 둘째는 청음석 수계를 조직하여 결속력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셋째는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청음석에 추송 공간을 건립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²³⁾ 청음석을 제재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을 일

23) 고전번역원DB와 유교넷(www.ugyo.net), 남명학교문헌시스템(nmh.gnu.ac.kr) 원문을 참고하였다.

별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청음석을 노닐거나 찾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작품이 남았고, 청음석의 원운에 따라 관련 인물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자는 주로 이황의 문인, 또는 일족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황 당대에는 다양한 인물군이 작품을 남겼으나, 점차 일문의 족친들을 위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점차 一門의 존장이 중심이 되어, 청음석을 기반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계회를 개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창작 시기는 대체로 연속된다.

번호	시제	작자	시기	출처	개념	주제
1	清吟石 謹次退溪先生韻(四首)	琴輔 (1521~1584)	1555	『梅軒集』卷一	遊賞	3-1 유상 및 사회
2	外王父松齋先生兜溪盤石韻 (二首)	吳守盈 (1521~1606)	1572	『春塘集』卷一	回想	
3	携里中諸年少遊清吟石 戊戌		1598	『春塘集』卷二	回想, 遊賞	
4	清吟石 敬次退陶先生韻和企庵			『春塘集』卷二	回想, 遊賞	
5	清吟石 敬次外王考松齋先生韻			『春塘集』卷二	回想, 遊賞	
6	清吟石 與朴子澄等會話			『春塘集』卷二	遊賞	
7	再疊清吟石韻 示惇叙子澄及諸公		1572	『春塘集』卷二	遊賞, 詩興	
8	清吟石次韻			『春塘集』卷二	詩興	
9	九月遊清吟石		趙穆 (1524~1606)	1593	『月川先生年譜』	
10	松齋先生兜溪盤石韻	李憑 (1520~1585)		『松齋集』	回想, 詩興	
11	七月五日先生乘黃墨之暇溯溪上釣於清吟石呼好文等舉網而漁得一盤或膾或羹遶察訪及溫溪四五人共餉時夕陽滿林山影倒溪風乎詠歸杖屨婆娑真仙會也恭次閑字韻近體一首	權好文 (1532~1587)	1555	『松巖集』卷一	遊賞, 詩興	
12	清明入清涼路中訪溫溪清吟石踏青會作		16세기	『松巖集』卷二	遊賞	
13	與吳大源過退溪先生舊居, 有感懷賦清吟石	裴應襲 (1544~1602)	17세기	『安村集』卷一	回想	
14	參老先生基所埋誌石, 歸路過清吟石 有感次韻	尹義貞 (1525~1612)	17세기	『芝嶺集』卷一	遊賞, 回想	

淸吟石에서의 문학 활동 양상과 의미(김선영)

15	溫溪訪退溪先生淸吟石. 村人云曾於潦漲時漂失所在, 悵然敬賦	蔡彭胤 (1669~1731)	1729	『希菴集』卷二十	遊賞	3-2 계회
16	淸吟石 敬次松齋先祖韻 (二首)	李濟兼 (1683~1742)		『杜陵集』卷一	遊賞	
17	宗門慶會錄序	李世澤 (1716~1777)	1771	筆寫帖	修契	
18	甲申九月十三日宗族五十以上人約各持酒饌一器會于寒捷庵實追述淸吟石故事而以季秋風高霜潔避寒移所故也席散後數三老次二祖韻傳示之龜星亦謹次 (八絶)	李龜星 (1756~1835)	1824	『俗隱齋集』卷二	修契	
19	三月初一日 自溫惠過淸吟石 石有松齋先生回字韻 其後先祖凡七和之 每過此 不勝感歎之懷 謹此用其韻 (二絶)	李頤淳 (1754~1832)	19세기	『後溪集』卷一	修契, 詩興	
20	續會淸吟石 敬次回字韻 (七首)		19세기	『後溪集』卷二	修契	
21	淸吟石 敬次松齋先祖韻 (二首)	李漢膺 (1778~1864)		『敬菴集』卷二		
22	溪陶山九曲要予追和忘拙步呈 <淸吟石>	李宗休 (1761~1832)		『下庵集』卷二	遊賞, 본 고성	
23	過淸吟石(癸未)	李晚寅 (1834~1897)	1883	『龍山集』卷一	遊賞	
24	伏次先祖淸吟石韻并序	李中轍 (1838~1937)	1919	『曉庵集』卷一	遊賞	
25	淸吟石修契序	李中均 (1861~1933)	1919	『東田集』	道學, 修契	
26	春日同溫村諸人遊淸吟石(丙寅)		1926	『東田集』卷一	遊賞	
27	十二月初六日大雪次退溪淸吟石送崔郎子	金基周 (1844~1882)		『梅下集』卷一	詩興	
28	古溪精舍八詠 <淸吟古石>	李彙寧 (1788~1861)		『古溪集』卷一	詩興, 情景	
29	兜溪精舍記	李鍾洙 (? ~1940)	1940	懸板		3-3 추승 공간 건립
30	淸吟亭記	鄭寅普 (1893~1950)	1940	成冊		

1. 遊賞과 詩會 경험 공유

이황은 도계 반석을 ‘청음석’이라 명명하고 특별하게 여겼다.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유람을 즐길 뿐만이 아니라, ‘맑게 읊조리는’ 목적에 의미

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황은 “시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절한 것은 아니나, 좋은 경치를 만나거나 흥겨운 일이 생기면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²⁴⁾”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학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서정을 통해 성정을 순화한다는 시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에 청음석에서의 ‘유상’과 ‘시회’ 경험은 주목된다. 아래는 이황이 읊은 <청음석>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亂披紅鬪裏	붉게 깔린 꽃떨기를 어지러이 헤치고서
閒擔綠波回	한가로이 녹파주를 메고 돌아왔네.
晚與溪童約	저녁에 아이들과 약속을 하였더니
盤擎活玉來	소반에 고기 높이 들고 오네. ²⁵⁾

시인은 혼자 꽃 덩불을 헤치며 청음석에 도착하였다. 한가로운 걸음으로 녹파주²⁶⁾를 짊어지고 왔다. 붉은 꽃과 초록 술의 색상 대비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시인이 특히 즐거운 것은 아이들이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멀리에서 소반에 안주를 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청음석에서의 모임은 아래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1555년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청음석에 모였다. 제자 가운데 梅軒 琴輔(1521~1584)와 松巖 權好文(1532~1587)이 지은 시를 살펴보자. 금보는 1555년 2월에 퇴계 선생을 모시고 향리로 돌아왔다. 이황이 성균관에 유학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당시 黨禍를 겪고 큰 변고가 일어날 조짐이 있어, 향리로 돌아왔고, 3월에 선생을 모시고 청음석을 유람하면서²⁷⁾ 시를 차운하여 선생께

24) 鄭惟一, 『文峯先生文集』 卷5, <閑中筆錄>, “詩於學者 最非急功 然遇景值興 不可無詩矣.” (손오규, 「퇴계의 시와 敬」, 『퇴계학논총』 제2집, 퇴계학부산연구원, 1996, 220쪽 재인용.)

25)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2, <淸吟石>. 이장우 번역본 「퇴계시 풀이」를 따랐다.

26) 洪萬選, 『山林經濟』 卷2, <治膳, 釀酒>에, 녹파주는 빛이 아름답고 맛이 유난히 좋다고 하였다.

27) 『梅軒先生年譜』에 “을묘(1555)년 3월에 청음석을 유람하였다.”라는 기사가 있고, 『매헌집』에는 <淸吟石謹次退溪先生韻>라는 제목으로 4수가 수록되었다.

올렸다. 아래는 4수의 시 가운데 마지막 수이다.

花滿春山富	꽃 가득하니 봄 산이 넉넉하고,
溪淸石照回	시내 맑으니 반석을 비추며 도네.
松陰元不惡	솔 그늘 원래 나쁘지 않은데,
更有晚風來	저물녘 바람마저 불어오네. ²⁸⁾

위의 시는 자연 그대로의 경계를 읊조린 데서 오는 미감이 잘 드러난다. 계절은 봄이다. 꽃이 산에 가득하고, 시내도 여전히 맑다. 솔 그늘만으로도 천지의 무한한 경계를 읊기 충분한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 이러한 마음을 고조시켰다. 인공의 장애물이 없는 청음석에서 천진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심상은 다음의 시에도 나타난다. <7월 5일, 퇴계 선생께서 글을 보시는 여가에 냇가를 거슬러 올라 청음석에서 낚시를 하였다. 호문 등을 불러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기에, 한 소반 분량을 잡아 회를 치고 국을 끓여 찰방과 온계의 네댓 사람을 불러 함께 먹었다. 이때 석양이 숲에 가득하고 산 그림자가 냇물에 어러, 바람을 쐬며 시를 읊고 지팡이를 짚고 한가히 배회하니 참으로 신선 모임과 같았다. 삼가 閑자 운에 차운하여 근체시 한 수를 짓다>라는 제목이다. 이 시의 경련과 미련 부분을 보자.

瑤池悅是群仙會	흡사 요지에 신선들이 모인 듯하고,
沂水依然冠者閑	옛날 기수에서 한가히 놀던 어른들이네.
風詠相携山日暮	산 너머로 해 저물어 바람 쐬고 시 읊으니,
遙隨倦鳥各知還	멀리 새들도 날다 지쳐 돌아가는구나. ²⁹⁾

시인은 스승을 모시고 청음석 주변 냇가에서 낚시하였다. 그는 이날의 모임을 봄날에 옷을 지어 입고 기수에서 노닐던 曾點의 흥취에 비유하

28) 琴輔, 『梅軒集』 卷1, <淸吟石謹次退溪先生韻>

29) 權好文, 『松巖先生文集』 卷1, <七月五日 先生乘黃墨之暇 溯溪上釣於淸吟石 好文等 舉網而漁得一盤 或膾或羹 邀察訪及溫溪四人共餉 時夕陽滿林 山影倒溪 風乎詠歸 杖屨婆娑 眞仙會也 恭次閑字韻近體一首>

였는데, 이것은 바람 쐬고 시를 읊는 즐거움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도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영남 학맥의 학문적 기반인 것이다.

이우의 직계 후손 李憑(1520~1585) 또한 청음석에서 시를 唱酬하였다.³⁰⁾ 그는 “일찍이 도계 반석에서 퇴계을 모시고 노닌 적이 있었는데, 그 날 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음석이라 이름한 뜻에 명을 받들어 원운에 차운한 뒤에 돌아갔다. 매번 동문의 제현들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나 좋은 날을 만나면 반드시 시를 수창하였다.”³¹⁾라고 전한다.

한편, 이우의 외손 吳守盈(1521~1606)은 청음석을 소재로 가장 많은 시를 남겼다. 선대를 추억하는 주제가 많기는 하나, 청음석에서 벗들과 회합하는 즐거움을 읊기도 하였다. <다시 청음석 운자에 맞춰 시를 읊어서 돈서 金富弼와 자정 朴濂 등 여러 벗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시³²⁾에서는 모임이 과한 뒤에 다시 ‘청음석’ 시구에서 운을 취했다. 그는 벗들에게 시를 보내면서 청음석 모임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위의 사실은 대개 동문의 제현들과 만나 ‘청음’의 뜻을 되새기는 행위로 이해된다.

청음석에서 시를 읊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593년 9월, 月川 趙穆(1524~1606)은 청음석에서 노닐며, “붉은 잎과 노란 꽃이 눈앞에 가득한데, 맑은 냇물과 푸른 산이 시름겹게 하네.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아 아직도 유감이 많은데, 임금 생각에 도성 보며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나?”³³⁾라는 시를 남겼다. 이 시는 모임에서의 흥취보다는 우국의 긴장감을 표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밖에도 일기 자료 등에는 청음석

30) 이빙의 자는 輔卿, 호는 晚翠軒, 본관은 진성이다. 송재 이우의 손자이다. 이황이 ‘만취헌’이라는 편역을 써주어 학문에 힘쓰기를 독려하였다. 만년에 溫溪에 四美亭을 지었으며, 학행으로 친거되었다.

31) 李中輒, 『曉庵文集』 卷12, <翎衛司副率贈通訓大夫司僕寺正晚翠軒李公[憑]墓碣銘>, “嘗陪遊于堯溪盤石, 追想當日詩意, 承命以清吟石名之, 仍次原韻而歸. 每與同門諸賢, 如遇勝景佳辰, 則必有唱酬.”

32) 吳守盈, 『春塘集』 卷2, <再疊清吟石韻 示惇叙, 子澄及諸公>, ‘形勝留今古, 山回水亦回. 峩洋得真趣, 誰遣抱琴來.’

33) 趙穆, 『月川集』 <月川先生年譜>, “九月 遊清吟石 有詩一絕曰 赤葉黃花滿目秋 碧溪青嶂使人愁 邊塵未掃猶多憾 望日忍君幾舉頭.”

에서 정기적으로 시 모임이 개최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록이 단편적이라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살필 수는 없으나, “金涌 道源이 지나는 길에 들러 나를 만나본 뒤에 청음석으로 갔다. 이는 김중철이 영지 모임을 행할 순서이기 때문이다.”³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청음석에서의 유상과 시회 활동은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중철(1838~1937)³⁵⁾은 <삼가 선조가 지은 청음석 시에 차운하여 읊다>라는 시에, “한 둘레가 몇 길 되는 반석이라, 여러 사람이 빙 둘러앉을 만하네. 아름다운 경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노니는 사람들이 끊임 없이 찾아오니,³⁶⁾”라고 읊었다. 반석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품은 반석의 성질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음석은 경치가 아름다워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풍광의 아름다움은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 되새겨진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청음석>에서 놀이나 시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살폈다. 이황을 비롯한 문인 제자, 후인들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 시를 지었다. 그러므로 청음석에서 시를 창작하는 행위는 ‘청음’의 뜻에 충실한 것이고, 청음석은 향촌 사람들의 ‘시를 읊조리는 장소’ 경험이 공유되는 장소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

2. 계획을 통한 의식 전승

대체로 18세기가 되면 후손들이 청음석을 찾는 이유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음석에서 이우와 이황, 두 분의 선조가 시를 읊조렸던 고사를 추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청음석이 후손들을 집결시키

34) 琴蘭秀, 『惺齋日記』 1597(선조 30년) 68세 3월 13일조. “正月作靈芝會[李佐郎 詠道, 金佐郎 涌, 李光承, 金中淸諸公同參. 四月又會淸吟石.”

35) 이중철의 호는 良石, 曉庵, 본관은 진성이다. 李晩愨과 김홍락에게 수학하였다. 을미사변이 일어나 의병을 일으키자 안동부의 참모 서기를 맡았다. 1913년 도산서원장이 되어 『陶山及門錄』을 간행하였다. 저서로는 『효암집』 18권 10책이 전한다.

36) 李中輓, 『曉庵文集』 卷10, <伏次先祖淸吟石韻 并序>, “一圍數仞石, 衆坐可容回. 莫道無佳景, 遊人不絕來.”

는 장소로 기능한 것이라 하겠다. 가문에 대한 향촌 사림들의 의식은 꾸준히 형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영남지역 사림들은 결속력을 도모하는 활동들을 펼쳤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는 영남지역 재지 사족들의 견고한 가문의식을 이해하는 것에 해답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후기에 들어 중앙 정계의 권력 독점화와 당파에 의한 사대부 계층의 지역적 분화는 영남의 향촌 사족들의 사회적 지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과거에 의한 출사가 제한되어 버린 현실에서 영남 남인들은 향촌 내 영향력과 경제적 위상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향촌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전대 선현의 모범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³⁷⁾

다음은 蔡彭胤(1669~1731)³⁸⁾이 지은 시이다. <온계에 퇴계 선생의 청음석을 방문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전에 물이 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 잃었다고 하니, 슬픈 마음으로 삼가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채팽윤은 1729년에 10월에 봉화 태백산 사고에 「肅宗實錄」을 봉안하러 오면서 안동 일대를 돌았다. 「奉使錄序」에 의하면, 그는 태사묘에 알묘하고, 저녁에 안동 인물들을 만났다.³⁹⁾

水淨山明舉眼殊	맑고 밝은 산수 바라보니 빼어나고,
風烟猶認舊風雩	풍광은 옛 풍우의 정취임을 알겠네.
緣溪處處皆遺迹	시냇물 따라 곳곳마다 옛 자취이니,
莫問清吟石有無	청음석이 있고 없음은 묻지 말게. ⁴⁰⁾

37) 임노직, 「도산구곡 시의 양상과 그 역사적 의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04-205쪽.

38) 채팽윤의 자는 仲蒼, 호는 希菴·恩窩이며, 鳩庵居士로 불리기도 하였다. 본관은 평강이다. 1689년(숙종15) 과거에 급제한 후 독서당에 뽑혀 문명을 얻었으나 이이, 성혼의 문묘 출향 상소에 연루되어 弘文錄에서 삭제되어 20여 년 동안 출사하지 못했다. 영조 즉위 이후 승지, 대사간, 병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昭代風謠』, 『希菴集』이 전한다.

39) 蔡彭胤, 『希菴集』 卷20, <奉使錄序>, “二十八日己巳晴。晚發未時抵安東府, 謁太師廟。主人使君與安奇察訪權啓來見。夕登映湖樓, 夜李察訪槩與三鄉所太師廟都廳, 藥房都廳來話。”

위의 시에서 ‘옛 風靄’라는 시어는 은자가 유유자적 노니는 모양을 의미한다. 공자의 물음에 曾皙은 자신의 소원이 “늦은 봄에 봄옷을 만들어 입고 관을 쓴 벗 5, 6명과 동자 6, 7명과 같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기우제 드리는 곳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나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청음석의 풍광이 옛날 성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곳이라는 태도다. 주목할 점은 청음석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채팽윤은 계산에 인접한 곳곳이 모두 선조들의 자취이므로, 청음석이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음석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신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자산임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를 보자. (가)의 시는 李濟兼(1683~1742)⁴¹⁾의 <청음석에서 삼가 송재 선조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다>이고, (나)의 시는 李漢應(1778~1864)의 <청음석에서 삼가 송재 선조의 운자에 차운하다>는 제목이다. 이들은 각자 선조의 청음석 시구에서 운자를 취해 2수씩을 지었다.

- | | |
|--------------------------------------|--|
| (가) 杖履曾遊地
晴川一練廻
羹牆無限意
今日子孫來 | 선생이 일찍이 오가며 노닐던 곳,
맑은 시내 한 줄기로 빙 둘러있네.
그리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으니,
오늘도 자손들이 찾아온 것이지. ⁴²⁾ |
| (나) 山色千秋靜
溪聲百轉回
淸吟當日石
白髮後孫來 | 산빛이 오래도록 고요하고,
물소리는 수백 번 돌아왔네.
그 날 바위에서 맑게 읊조려,
백발 된 후손이 찾아 왔다네. ⁴³⁾ |

40) 蔡彭胤, 『希菴集』 卷20, <溫溪訪退溪先生淸吟石. 村人云曾於潦漲時漂失所在, 悵然敬賦.>

41) 이계겸의 자는 善卿, 호는 杜陵. 본관은 진성이다. 부친 이동표가 삼척 부사로 재직할 때 부친의 임지를 방문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에 증광별시에 급제하였다. 1727에 栗峯道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말을 빼앗겼다는 죄목으로 宣川에 유배되었다가 체천으로 移配되었다. 3년 후 고향으로 돌아와 거처를 鹿洞으로 옮기고 ‘滄浪子’로 자호하였다. 李光庭·權萬 등과 친교가 있었다. 1741년(영조 17)에 신원되었다.

42) 李濟兼, 『杜陵集』 卷1, <淸吟石敬次松齋先祖韻二首>

43) 李漢膺, 『敬菴集』 卷2, <淸吟石 敬次松齋先祖韻二首>

위의 두 시는 형식상 제목이 같고, 주제도 유사하다. 이한응은 이제겸의 증손이다. 시가 흡사하다는 것은 차운의 특징일 수 있으나, 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한응은 도산서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1850년에 청량산의 오산당에서 강회를 열어 영향력을 끼쳤다. 600여 명의 영남 유림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참석한 대규모의 강회였는데, 屏虎 是非로 분열된 영남 유림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⁴⁴⁾

영남지역의 결속력은 <宗門慶會錄>⁴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신묘년(1771)과 임진년(1772)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이다. 신묘년에는 66명의 진성이씨 족친들이 참석하였고, 임진년에는 향내의 사족 38명이 참석하였다. 신묘년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진성이씨 인물들로 이름과 자, 생년 순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임진년의 모임은 <향내 참회록>이라 하여 본관과 이름, 나이가 적혔는데 서체가 고르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중문경회록>의 서문에 중회의 목적이 드러난다. “가문의 족친들이 때때로 잔치를 여는 것은 친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기 위함이다. 위씨 집안의 화수회를 세상 사람들이 실로 대부분 배워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으면 중친회에서 비로소 경사를 함께 한다.”⁴⁶⁾는 것이다. 한편, 響山 李晚燾(1842~1910)가 찬한 家狀에 “지추공이 2품으로 贈職된 해에 청음석에서 해마다 한 차례 열었던 모임을 수졸당으로 옮겨서 열고, 그 첩을 <중문경회록>이라고 하였다. 鈞隱公 世澤이 서문을 지어 찬미하였다.”⁴⁷⁾는 기록이 있다. 지추공은 이만도의 고조인 李世師(1694~ 1781)인데, 1772년에 종2품 嘉義大夫에 증직되었다. 이 모임에는 향내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대거로 참석하고 있어, 모임

44) 임노직, 「吾山堂講錄」, 『국학연구』 5집, 2004.

45) 진성이씨 향산고택에 전해온 첩으로, 크기는 세로 34.1cm, 가로 20.2cm이다.

46) <宗門慶會錄序>, “門族之以時讌會, 所以敦親也. 若韋家之花樹會, 世固多有倣而行之者矣. 有慶喜則宗親會, 始所以同慶也.”

47) 李晚燾, 『響山集』 卷18, <叔曾祖通德郎府君家狀>, “知樞公二品馳贈之時, 淸吟石歲一之會, 移設於拙堂, 而名其帖曰: 宗門慶會錄. 鈞隱公世澤, 序其事以美之.”

의 규모와 위상이 짐작된다. 특히, <중문경회록>의 서문을 지은 이세택(1716~1777)은 溫溪 李瀼의 8세손이다. 1753년 庭試文科에 급제하였다. 1755년에 이황의 저술 『聖賢道學淵源』을 영조에게 바쳐 초모를 하사받았고, 1761년 북평사로 임명되어 함경도 일대를 돌아보고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저술로는 『淸涼志』 및 한글본 『퇴계선생연보』, 당쟁기록 「黨禍錄」 등이 있다고 전한다.⁴⁸⁾ 영남 남인의 출사가 제한되었던 당시에 정계에 진출하여 대사헌에 올랐던 인물이다.

“매년 1회에 족친들끼리 청음석에 모이자는 규약이 정해졌다.…… 여러 족친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모두 오늘은 청음석의 모임을 계상으로 옮긴다면 한 번 움직여서 두 가지가 좋을 것이라 하였다. 이내 4월 경인 복일에 계상의 수졸당에서 재회하였다.”⁴⁹⁾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청음석에서 1년에 1번씩 정기적인 회합을 개최하자는 규약이 정해졌다. 이후 청음석 수계는 정기적으로 열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李頤淳(1754~1832)은 매년 청음석을 지날 때마다 시를 지었다.⁵⁰⁾ <청음석의 모임을 잇고, 삼가 회자 운에 차운하다>는 시에 “옛날 노나라에 기수가 있으니, 동자들과 시 읊조리며 돌아왔네. 후인들이 아름다운 일로 전하니, 청음석에 몇 번이나 함께 왔을까.”⁵¹⁾라고 읊어, 모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황의 후손으로, 가학의 연원을 계승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李龜星(1756~1835)⁵²⁾ 또한 “갑신년(1824) 9월 13일에 종족 50여

48) 정우봉,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 『대동문화연구』 제109집, 대동문화연구소, 2020, 참조.

49) <宗門慶會錄序>, “每年一會闔族於淸吟石規約定矣.……諸族僉議, 皆謂今可移淸吟之會於溪上, 一行而兩善, 乃而四月庚寅卜日齋會於溪上之守拙堂.”

50) 李頤淳, 『後溪集』 卷1, <三月初一日 自溫惠過淸吟石 石有松齋先生回字韻 其後先祖凡七之和 每過此 不勝感歎之懷 謹此用其韻二絕>

51) 李頤淳, 『後溪集』 卷2, <續會淸吟石, 敬次回字韻>, “東魯有沂水, 冠童風詠回. 後人傳勝事, 石上幾同來.”

52) 이구성의 자는 恩瑞, 호는 俗隱齋, 본관은 진성이다. 부친은 世翬이다. 1790(정조

인이 약간씩 각자 술과 안주 한 그릇을 가지고 한서암에 모였다. 실상은 청음석의 고사에 회포를 나누기 위함이었으나 늦가을이라 바람이 높고 서리가 차서 추위를 피해 이곳에 모인 것이다. 자리가 파한 뒤에 몇몇 노인이 송재와 퇴계, 두 선조의 운자에 차운하여 시를 보내주었다. 나 또한 시에 차운하여 여덟 절구를 읊는다.”⁵³⁾라며 시를 지은 이유를 밝혔으니, 청음석에서의 옛일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중철은 청음석에서의 수계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그는 “아름다운 시가 십 대를 내려오면서, 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읊조렸다. 차마 땅이 황폐해진 걸 볼 수 없어, 후손들이 수계하고자 찾아 왔네.”⁵⁴⁾라고 읊었다. 아래의 인용문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퇴계가 숙부의 시를 차운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때 읊었던 시와 반석은 무릇 다른 곳에서 노닐며 읊조린 것과는 다른 것이다. 곧 고계정 남쪽 언덕 시내가 있는 반석이 곧 그 반석이요, 중군 忠鎬(1872~1951)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돌이 그 반석이다. 임시로 한 칸 누옥을 짓고 우선 ‘청음석 수계’라 이름을 붙여, 1년에 한 번 모이는 구실로 삼았으니, 매우 위대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다. 마침내 삼가 차운하여 뜻을 기록한다.⁵⁵⁾

수계하는 이유는 선조들의 자취를 보존하는데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결속을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 정

14)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있을 때 응교로 뽑혔다. 1810년 河陽縣監에 임명되었는데, 구황 사업에 공로로 말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819년 풍기군수를 마지막으로 낙향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53) 李龜星, 『俗隱齋文集』卷1, <甲申九月十三日 宗族五十以上人 約各持酒饌一器 會于寒棲庵 實追述清吟石故事 而以季秋風高霜潔 避寒移所故也 席散後 數三老 次二祖韻 傳示之 龜星亦謹次八絕>

54) 李中輓, 『曉庵文集』卷10, <伏次先祖清吟石韻 并序>, “遺芬十世下, 幾度吟魂回. 不忍荒廢地, 雲孫修契來.”

55) 李中輓, 『曉庵文集』卷10, <伏次先祖清吟石韻 并序>, “是乃丁未年事, 而上距辛未爲三十七年矣. 追記十一歲時事 誦詩次韻如此. 其詩其石, 與凡他遊詠有異, 卽今古溪亭南岸臨溪盤石, 卽其石也. 宗君忠鎬不欲等閒其石, 擬建一屋, 而先修契名, 爲一年一會之資, 甚偉事也勝舉也, 遂敬次以識意.”

계로의 진입이 어려웠던 시대적 현실 앞에서, 향촌 사족들이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선현의 고사를 전승하고, 의식을 공유하여 정신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도 변함없었다. 다만, 청음석에서의 문학 활동이 이전과 달리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 변했는데, 선대를 기리는 공간 건립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문학 갈래의 측면에서도 시를 창작하는 것보다 주로 기문이 지어졌다. 다음 장에서 변모된 활동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3. 선대의 추송 공간 건립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淸吟石은 이우가 시를 읊은 곳이자, 이황이 총각 시절부터 만년까지 애호한 곳이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음석은 퇴계 학맥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의미화되어 주목된다. 東田 李中均(1861~1933)⁵⁶⁾이 지은 <청음석 계첩 서문>을 보기로 한다.

이황은 총각 시절 숙부를 모시고 노닐었던 때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청음석을 찾았다. 이 때문에 청음석은 이황이 시를 읊조리며 아끼는 장소로 인식되어 집안의 물건[家物]으로 숭상된다.⁵⁷⁾ 그러나 청음석은 개울가에 있는 자연물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황폐해지고, 간혹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면 모래나 자갈로 뒤덮였다. 퇴계의 종손 李忠鎬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청음석의 정비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그는 향촌 내의 족친 및 사우들과 뜻을 모아 청음석 계를 결성하였다. 이중균은 그것이 선대의 전통을 전승하고 지키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선조들이 머물던 자취마다 흠모하는 마음이 일지만, 청음석은 더욱 특별하다는 것이

56) 이중균의 자는 國卿, 호는 山庭, 본관은 진성이다. 도연명의 풍모를 사모해 東田潛士로 직접 서명하였다. 가학을 바탕으로 학문을 익혔으며, 『퇴계집』을 깊이 연구하였다.

57) 李中均, 『東田潛士遺稿』 卷10, <淸吟石契帖序>, “松齋先生始品題之, 先祖退陶先生, 自卅角陪遊至于晚歲, 緣溪上下, 每嘗取路來臨, 而其見於吟詠者, 眷眷如此, 淸吟石之爲吾家物尙意矣.”

다.58)

옛사람들이 돌에 대해서는 아껴 가까이하며 모으는 것도 많았고, 기록하고 읊어서 전하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 이 돌처럼 도학연원의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 집안의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인근의 사림이 함께 애호하는 곳이니, 호경(이충호의 자)가 그 뜻을 넓히는 것은 옳은 일이다. 비록 돌은 하나의 물건이나, 가문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자 모범이다. 삼가 받들어 지켜서 나에게 넘겨서 하여 남에게 베풀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청음석의 경중과 대소를 살피는 것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59)

이중균은 청음석을 ‘도학연원방’의 맥과 연결지었다. 1715년 도산서원 원장으로 재임한 蒼雪齋 權斗經(1654~1725)은 퇴계의 자취를 남기고자 秋月寒水亭을 지었다. 그는 퇴계가 주자의 학문을 잇고 있다는 인식 아래, 그곳을 ‘도학연원방’이라고 명명하여 이황의 학문과 사상의 원두처임을 공표하였다. 이중균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음석이 도학의 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청음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강점이 현실화된 1910년 이후에는 서당교육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문집 간행이 활발한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선현들이 남긴 기록과 그 기록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를 보존

58) 李中均, 『東田潛土遺稿』卷10, <清吟石契帖序>, “松石在溪傍, 歲久叢薄之翳, 苔蘚之侵, 勢有所不容無者。間遇水潦則奔沙迸礫, 又從而汨亂之, 經過者, 或不能認焉。近者宗姪恕卿甫, 爲是懼, 亟剷除之疏滌之, 使之瑩然而呈露。又廣其意, 謀諸門族及鄉隣諸士友, 就石上書名一冊, 名曰: 清吟石契帖。余曰: 美哉, 傳守之義也。惟此溪山之內, 吾祖杖屨之所臨, 芬馥之所留, 一丘一壑一草一木, 尙猶起敬而興慕, 況之石之被遇殊深眷眷焉, 發之吟詠者乎。”

59) 李中均, 『東田潛土遺稿』卷10, <清吟石契帖序>, “古人之於石, 愛玩而蓄者多矣, 記詠而傳之者亦多矣。孰有如之石之托根於道學淵源之坊, 而其光輝有不可泯焉者乎。然則謂之吾家物亦未也。抑近居士林之所與共愛護者, 恕卿之廣其意有是。夫雖然石一物也, 家傳之典訓模範, 有可以恪謹遵奉, 裕於己而施於人, 永久無替者, 其視石輕重大小, 宜何如也。”

하여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작동된 것이다.⁶⁰⁾ 이것과 동일 선상에서 전통 유학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당대 사림들의 의식이 청음석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우의 嗣孫 李鍾洙(?~1940)가 펼친 가문의 현창 사업으로 연결된다. 이종수는 1937년에 『송재집』 별집을 간행하였다. 별집 간행 시에 속집을 재편집하여 간행하였으며, 다만 본집은 애초 退溪의 手本을 중히 여기는 뜻에 따라 그대로 두고 新本인 속집과 별집을 합하여 三集을 완비하였다.⁶¹⁾ 그는 문집 발간 이외에도 위선 사업을 주도하였는데, 도계정사의 건립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爲堂 鄭寅普(1893~1950)⁶²⁾가 지은 <청음정기>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난해에 선생의 14세 후손 종수가 비로소 반석 경계에 정자를 짓기 시작하여, 지금 경진년(1940)에 공사를 마쳤다. 절기상 입하에 이르자 선생의 신위를 마련하여 사우들과 모여서 낙성을 고한 뒤에 ‘청음석’이라는 이름 그대로 편액하였다. 이에 선생과 문순공, 숙질 사이인 두 어른이 다니시던 자취가 완연히 있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⁶³⁾

정인보에게 <청음석>의 기문을 청한 이는 文巖 孫後翼(1888~1953)⁶⁴⁾이다. 그는 1939년에 정인보에게 서찰을 보내, ‘이우의 봉사손인

60) 황위주, 「일제강점기 문집편찬과 대구·경북지역의 상황」 대동한문학회 제49집, 2016, 19쪽.

61) 한국문집총간 『송재집』 해제 참조.

62) 정인보는 국권 상실 후에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였고, 국학자로서 우리 고전과 역사를 집필, 문인으로서 시조와 여행기, 한문 산문을 지었다. 특히, 1938~1945에 일체의 횡포가 심해지자 지방으로 은거하여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고 절필을 했던 양심적 지식인이다. (김영, 「위당 정인보론」, 『민족문학사연구』 제3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참조.)

63) 鄭寅普, <淸吟亭記>, “去歲, 先生十四世嗣孫鍾洙, 始構亭石畔, 至今歲庚辰役訖. 卜以立夏氣至設位先生, 會士友告成而扁之如石之名. 於是先生暨文純公叔姪二賢, 往躡宛在, 若可得以卽焉.” (진성이씨 송당과 송재종가 기탁)

64) 손후익의 자는 德夫, 호는 문암, 본관은 월성이다. 그의 누이 가운데 한 분이 퇴계 이황의 11대손이자 이만도의 아우인 柳川 李晩燁와 혼인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해제』 23집, 문암집 해제 참조, 2015.)

李鍾洙(字 其範)는 송재가 노닐었던 淸吟石 곁에 도계정사를 지어 선조를 기리고자 했다. 그는 기문을 당신에게 부탁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기문을 청한다.’라고 하였다.⁶⁵⁾ 이듬해에 손후익은 정인보에게 “〈淸吟石記〉는 말씀대로 李鍾洙의 아들에게 보냈다.”라는 답신을 보냈는데,⁶⁶⁾ 도계정사가 마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계정사의 외부에는 2개의 편액이 걸렸다. ‘도계정사’와 ‘청음헌’이 그것이다. 본체에는 ‘도계정사’ 현판이 걸렸고, 협실 마루에는 도계정사 현판보다 작은 규모로 제작된 ‘청음헌’ 현판이 걸렸다. 이것은 송재 이우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퇴계 이황을 함께 기리는 의미일 것이다. 도계정사의 내부에는 이종수가 지은 <도계정사기>와 이우의 원시, 제현들의 차운 시를 새긴 시판을 걸어, 청음석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종수가 지은 <도계정사기>에 의하면, 도계정사의 건립은 순탄치 않았다. 정사년(1917)에 儒契를 모아 정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무인년(1938)에 족친들이 모여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아, 기묘년(1939) 봄에 반석에서 한발 남짓한 언덕 위에 터를 닦고, 이듬해에 정사 여섯 칸 주사와 열두 칸 문간채 네 칸을 지었다.⁶⁷⁾ 도계정사가 수년에 걸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계정사가 완성되자 이종수는 4백여 년 동안 긴 세월을 묻혔던 옛일이 어제와 같이 새롭다는 감회를 드러냈다. 또한, 후손들이 자주 들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⁶⁸⁾ 선조

65) 孫厚翼, 『文巖集』 卷7, <與鄭景施(1939)>, “吾友李其範[鍾洙], 松齋先生祀孫也. 孝於事親, 誠於報祖, 推以篤於朋友, 蓋其至性然也, 而溫恭謹拙, 猶臨事有幹辦, 凡可以爲先興物者, 可謂無不備矣. 去年春, 營兜溪精舍於淸吟石之傍, 淸吟石在兜溪之上盤陀, 可坐數人, ……蓋先生文章學問, 雖未有多傳之文字, 而其教誨夫子, 使以吾東道學之祖, 則其功亦可爲後世師. 又此兜溪一曲, 卽先生家物而夫子所云陶溪者, 乃因此地而雅其名者也.”

66) 孫厚翼, 『文巖集』 卷7, <答鄭景施(1940)>, “淸吟石記, 依教書, 送於其範之子.”

67) 李鍾洙, <兜溪精舍記>(記板), ‘往在丁巳爲修儒契, 蓋營精舍而未果. 戊寅更謀於諸族咸曰: 此事不可遂已, 各隨力釀金. 己卯春, 拓基于距石一武地, 經年而造功舍, 瓦六間·廚舍十二間·翼廊四間, 是役也. 族兄鍾韶·族弟鍾漢, 始終監董, 而退陶嗣孫忠鎬氏, 及老松亭宗君範教亦同贊劃, 爲既落, 扁以兜溪, 軒曰淸吟.’

68) 李鍾洙, <兜溪精舍記>(記板), ‘四百年桑滄浩劫之餘, 惟是溪山如昨, 而椽楣一新, 凡爲

의 고사를 추모하고, 선현의 시가 계속 낭송되면 그 정신이 계승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청음석’이라 명명된 장소와 그곳에서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시도되었다. 청음석은 이황이 차운 시를 남긴 이후로부터 지속과 변모를 거쳐 현재까지도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Ⅱ장에서는 이우가 지은 原詩와 청음석을 제재로 한 이황의 시를 살폈다. 이우는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휴가차 고향 땅을 노닐며 시를 남겼다. 당시에 이우의 유람에 동반했던 이황은 관료가 된 뒤에 청음석을 찾았고, 그는 ‘숙부 이우’와 ‘시인 이우’에 대한 공감 아래 청음석을 아꼈다. 특히, ‘청음’이라는 문학 활동에 주목한 것은 출처에 대한 고민을 위로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Ⅲ장에서는 청음석에서의 활동 양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청음석에서의 유상과 시 모임이다. 청음석은 이황은 물론 그의 문인, 후손들이 일부러 찾는 장소였다. 곧 청음석에서 시를 창작하는 행위는 ‘청음’의 뜻에 충실한 태도였고, 청음석은 향촌 사립들의 ‘시를 읊조리는 장소’ 경험이 공유되는 현상이었다. 둘째는 청음석 수계를 조직하여 결속력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청음석에서 선대의 고사를 재현하고, 선조의 자취를 계승해 나가는 전통은 영남지역 사립들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과 다름없었다. 셋째는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추승 공간의 건립이다. 청음석은 이황이 아낀 이후로 진성이씨 문중의 家物로 인식되었고, 퇴계 증가를 비롯한 도학의 연원이 되는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당대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식에서 비

後裔者, 每登斯軒, 仰瞻扁額, 則宛如復見吾祖當日事, 而退翁詩所云, 坡陀窈窕者, 益爲之增彩矣.’

못된다. 그러므로 후손들은 청음석 언덕에 도계정사를 세워 이우와 이황을 함께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하였다. 먼저, 문학 활동의 순기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청음석이 후대에까지 존속된 이유는 그곳에서 문학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문학창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황이 지은 청음석 시만 남았다면 과연 어떠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시대별로 장소가 의미화되어 가는 과정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영남지역 유림들의 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신적 가치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었다. 나아가 청량산이나 도산서당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영역으로 의미화된 것처럼, 청음석도 그 역할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장소 변천에 대한 고찰은 지역 문화를 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청음석> 시의 문학적 특질을 밝히는 과제가 남아있음을 밝혀둔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權好文, 『松巖文集』
琴蘭秀, 『惺齋日記』
琴輔, 『梅軒文集』
李龜星, 『俗隱齋文集』
李晩燾, 『響山集』
李堦, 『松齋先生文集』
李頤淳, 『後溪集』
李濟兼, 『杜陵集』
李中均, 『東田潛士遺稿』
李中轍, 『曉庵文集』
李漢膺, 『敬菴集』
李滉, 『退溪全書』
孫厚翼, 『文巖集』
吳守盈, 『春塘文集』
鄭寅普, 「淸吟亭記」
洪萬選, 『山林經濟』
蔡彭胤, 『希菴集』
李鍾洙, <兜溪精舍記> 記板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해제』 23집(문암집 해제), 2015.
김영, 「위당 정인보론」, 『민족문화사연구』 제38집, 민족문화사학회, 2008.
권오영, 「고계 이회녕의 학문과 퇴계 학맥에서의 위상」, 『연민학회』 32집, 연민학회, 2019.
김덕삼 · 이경자, 「장소와 경험의 상관성 탐구: 중국 북경 소수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제9집, 인문예술학회, 2020.
김주한, 「이퇴계 시문 중의 명명의식」, 『퇴계학보』 67권, 퇴계학연구원, 1990.
손오규, 「퇴계의 산수소품 연구」, 『새얼어문논집』 7권, 새얼어문학회, 1994.
이종호, 「퇴계의 비지문자론 연구서설」, 『퇴계학』 2권, 안동대퇴계학연구소, 1990.
임노직, 「도산구곡 시의 양상과 그 역사적 의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윤천근, 「퇴계 이항의 감성철학-땅 관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0권, 퇴계학 연구원, 2016.

정우봉,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 『대동문화연구』 제109집, 대동문화연구소, 2020.

전병철, 「東田潛士 李中均의 생애와 학문」, 『연민학지』 29집, 연민학회, 2018.

Abstract

Literary activities and Meaning in the CheongEum-seok

Kim, Sun-young

In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place named "CheongEum-seok" by Lee-Hwang(1501-1570) and literary activities. CheongEum-seok is a stone of Dogye, Lee-woo(1469-1517) did sightseeing. Since Lee-Hwang left a poem, it has still functioned as a meaningful place. Lee Hwang loved the CheongEum-seok as an empathy for "Uncle Lee-Woo" and "Poet Lee-Woo".

There were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CheongEum-seok. The first, sightseeing and poetry gathering. It functioned as a site where the experiences of Hyangchon-Salim(鄉村士林)'s a place to recite poems and play are shared. Second, there pursued solidarity by organizing a CheongEum-seok gathering. Third, It is the construction activity of the respectful space.

CheongEum-seok symbolized as the The origin of DoHak(道學) and It's be recognized as a important things in the house. As a result, The following meanings were derived. It's check it out Positive function of literary activities and how a place becomes meaningful.

keywords :

Rock of DoGye, SongJae Lee-woo(송재 이우), CheongEum-seok(청음석), T`oegyee Lee-Hwang(퇴계 이황), poetry gathering(詩會), gathering(계획), DoGye-jeongsa(도계정사)

